

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-Sufficiency and Welfare

# KDISSW 자활정책 Brief

발행 2022년 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

##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및 효과성

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
-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.
-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.

### 1. 응답자의 일반적, 수급, 사업단 참여 특성

### 2.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효과성 : 참여자 관점

- 1) 사업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
- 2) 사업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
- 3) 근로 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향
- 4) 참여 이후 정서적 자활 변화에 대한 인지
- 5) 참여 이후 진로준비행동의 변화에 대한 인지

### 3. 미래와 자립에 대한 생각

### 4. 나가며 : 의미있는 몇 가지 발견과 제언

###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및 참여자와, 조사 참여 청년자립도전단 및 응답자 현황

전국 청년자립도전단 및 참여자 현황 (2021. 9월 기준)

	빈도	백분율(%)
총 청년자립도전단 (개소)	79	100.0
총 참여청년 (명)	1,048	100.0
센터유형별 참여청년 (명)	도시형	848
	도농복합형	142
	농산어촌형	58
센터규모별 참여청년 (명)	확대형	426
	표준형	542
	기본형	80

응답 청년자립도전단 및 응답자 현황

	빈도	백분율(%)
응답 청년자립도전단 (개소)	78	100.0
응답자 (명)	536	100.0
센터유형별 참여청년 (명)	도시형	451
	도농복합형	78
	농산어촌형	7
센터규모별 참여청년 (명)	확대형	210
	표준형	292
	기본형	34

## I. 일반적 특성 및 수급 특성

(단위: 명, %)

특성	빈도	백분율
성별	남성	241 45.0
	여성	295 55.0
학력	중졸이하	42 7.8
	<b>고졸</b>	<b>318 59.3</b>
	전문대졸이상	176 32.8
연령대	20~29	383 71.5
	30~39세	153 28.5
혼인 상태	<b>미혼</b>	<b>461 86.0</b>
	기혼	25 4.7
	이혼/사별	42 7.8
	기타	8 1.5
가구주 여부	가구주	268 50.0
	비가구주	268 50.0
동거인 유무	유	314 58.6
	무	222 41.4

특성	빈도	백분율
장애 여부	비장애	511 95.3
	장애	25 4.7
자격증	자격증없음	82 15.3
	<b>1개</b>	<b>148 27.6</b>
	<b>2개</b>	<b>119 22.2</b>
	<b>3개이상</b>	<b>187 34.9</b>
수급여부 및 유형	<b>조건부수급</b>	<b>349 65.1</b>
	<b>일반수급</b>	<b>82 15.3</b>
	<b>자활특례</b>	<b>40 7.5</b>
	특례수급가구원	4 0.7
	시설수급	10 1.9
	<b>차상위계층</b>	<b>51 9.5</b>
	평균 (표준편차)	(최소-최대값)
연령	26.96 (5.44)	18-40

- 남, 여 비슷 (남 45%, 여 55%)
- 학력은 고졸이 약 60%로 가장 많음.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 약 33%
- 연령대는 20대가 70% 이상으로 평균 27세
- 약 86% 미혼
- 과반수 50% 가구주
- 약 40%가 독거 중이며, 동거인은 부모가 가장 많음
- 약 85%가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며, 3개 이상 보유 비율 35%
  - 자활에서 자격증 취득 77.8%
- 수급유형은 조건부 수급이 65%로 가장 많으며, 다음으로 일반수급 15%, 차상위 10%, 자활특례 7.5% 순임

## II.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특성

(단위: 명, %)

특성		빈도	백분율
참여 여부	참여중	508	94.8
	만료/종결	28	5.2
참여 기간	6개월 미만	108	20.1
	6개월 - 1년	142	26.5
	1년 - 2년	186	34.7
	2년 이상	100	18.7
참여 사업	임파워먼트1	68	12.7
	취업지원형	105	19.6
	<b>창업지원형</b>	<b>220</b>	<b>41.0</b>
	자활근로형	143	26.7
월 평균 급여	100만원 미만	13	2.4
	<b>100-150만원</b>	<b>451</b>	<b>84.1</b>
	150-200만원	70	13.1
	200만원 이상	2	.4
<b>지각조퇴무단결근 경험있음</b>		<b>201</b>	<b>37.5</b>
↳ 지각 경험있음		130	24.3
조퇴 경험있음		201	37.5
무단결근 경험있음		34	6.3

특성		빈도	백분율
근로 업종 (중복응답)	공방,목공,가족	23	4.3
	편의점(판매)	35	6.5
	<b>카페(판매,제조)</b>	<b>192</b>	<b>35.8</b>
	광고대행	2	0.4
	음식점(외식)	31	5.8
	온라인쇼핑몰(소매)	16	3.0
	식품생산(커피,원두)	21	3.9
	행정,사무	23	4.3
	인테리어디자인	2	0.4
	미용	11	2.1
	운수	4	0.7
	제과제빵	28	5.2
	간호조무/사회복지	10	1.9
	<b>자격증취득교육중</b>	<b>189</b>	<b>35.3</b>
	기타 (인턴, 판매서비스직, 청소대행, 택배, 영상촬영편집 등)	73	13.6

- 응답자 대부분(95%) 참여 중.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, 1년 이상 반반
- 창업지원형 약 40%, 취업지원형 20%, 자활근로형 27%, 임파워먼트 13% 참여
- 대체로 월평균 100-150만원 급여 수령
- 참여자 중 37.5% 지각, 조퇴, 무단결근 경험 있음
- 근로업종으로는 카페 35.8%, 자격증취득 교육 35.3%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점, 음식점, 제과제빵, 행정/사무 순

### Ⅲ.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효과성

#### 1) 참여자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적절성에 대한 인식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
		사업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인식(총합)	<b>3.64</b>	3.65	3.63	3.60	3.70	<b>3.58**</b>	<b>3.70**</b>	3.76	3.77
자격조건 및 선발기준 (수급,차상위)	3.61	3.64	3.59	3.66	3.58	3.57**	3.65**	3.75**	3.79**	3.55**	3.50**
선정대상 (만18~39, 신규 및 2년이내)	3.60	3.66	3.56	3.70*	3.56*	3.51	3.71	3.75	3.72	3.53	3.56
지원기간 (최대 3년)	3.50	3.54*	3.47*	3.69**	3.41**	3.37	3.65	3.72**	3.70**	3.42**	3.38**
참여조건 (1일 8시간, 주5일)	<b>3.82</b>	3.88	3.78	3.82	3.82	3.81**	3.83**	4.01**	3.96**	3.80**	3.66**
교육비 지원 (개인당 220만원)	3.63	3.63	3.63	3.65	3.62	3.59	3.68	3.72	3.76	3.60	3.54
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	<b>3.83</b>	3.87	3.79	3.87	3.81	3.84	3.81	3.84	3.91	3.85	3.73
인턴근로 참여 (6개월단위 계약, 1회 3개월 연장 가능)	3.45	3.35*	3.53*	3.49	3.43	3.39	3.51	3.49	3.59	3.45	3.33
사업유형 구성	3.65	3.63	3.67	3.73	3.62	3.59	3.72	3.79	3.70	3.69	3.50

주) '1점-매우 부적절'에서 '5점-매우 적절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인식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3.64점. 전반적으로, 3점(보통)과 4점(적절) 사이
-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, 참여조건 등을 상대적으로 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지원기간 및 인턴근로 참여 방식을 상대적으로 덜 적절하다고 인식
-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 유의함. 1년 미만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

## 2) 청년자립도전단 사업(개인별 자립계획수립)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
		개인별자립계획수립 전반적 도움 인식(총합)	3.49	3.54	3.45	3.58	3.45	3.51*	3.47*	<b>3.49*</b>	<b>3.73*</b>
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	<b>3.52</b>	3.61	3.44	3.56	3.50	3.53	3.50	3.46**	3.81**	3.48**	3.38**
직업심리검사 <sup>2)</sup>	<b>3.51</b>	3.56	3.47	3.60	3.47	3.53	3.50	3.60	3.68	3.48	3.41
직업카드 <sup>3)</sup>	3.45	3.47*	3.43*	3.53	3.41	3.47	3.42	3.38	3.64	3.42	3.37
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	3.44	3.47*	3.41*	3.55	3.38	3.47	3.40	3.41*	3.70*	3.40*	3.30*
장단기 자활계획수립	<b>3.54</b>	3.58*	3.51*	3.64	3.49	3.55*	3.53*	3.62**	3.80**	3.49**	3.53**

주1) '1점-전혀 도움이 안됨'에서 '5점-매우 도움이 됨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

2) 직업심리검사에는 직업선호도, 구직준비도, 적성검사 등이 포함됨

3) 직업카드는 직업가치, 직업선호 파악을 위해 활용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중 개인별 자립계획수립의 도움에 대한 정도는 3.49점이며, 전반적으로 3점(보통)과 4점(도움이 됨) 사이
-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, 장단기자활계획수립은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. 반면, 직업카드,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음
- 참여유형 별로는 취업지원형의 경우 도움 정도 높게 인식한 반면, 자활근로형은 낮게 인식함

## 2) 청년자립도전단 사업(역량강화활동)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
		역량강화활동의 전반적 도움 인식(총합)	<b>3.55</b>	3.57	3.54	3.64	3.51	3.56	3.53	<b>3.59**</b>	<b>3.78**</b>
등기부여교육 <sup>2)</sup>	3.53	3.55*	3.51*	3.65	3.47	3.56	3.50	<b>3.75**</b>	<b>3.73**</b>	3.49**	3.34**
취업준비교육 <sup>3)</sup>	3.51	3.54	3.48	3.65	3.44	3.56	3.46	<b>3.66**</b>	<b>3.79**</b>	3.40**	3.40**
취창업 성공담 특강	<b>3.43</b>	3.49	3.39	3.51	3.39	3.44	3.42	3.47	3.63	3.37	3.36
현장 탐방	3.50	3.54	3.47	3.52	3.49	3.52	3.48	3.37**	<b>3.75**</b>	<b>3.51**</b>	3.37**
자격증 취득	<b>3.90</b>	3.91*	3.90*	3.99	3.86	3.87	3.94	<b>4.00**</b>	<b>4.10**</b>	<b>3.91**</b>	<b>3.70**</b>
직업정보 탐색	3.59	3.61*	3.58*	3.64	3.57	3.60	3.58	3.60*	<b>3.81*</b>	<b>3.58*</b>	<b>3.45*</b>
청년사업단 자조모임	<b>3.38</b>	3.37	3.38	3.49	3.32	3.40	3.35	3.31**	3.67**	3.33**	3.27**

주1) '1점-전혀 도움이 안됨'에서 '5점-매우 도움이 됨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

2) 직업심리검사에는 직업선호도, 구직준비도, 적성검사 등이 포함됨

3) 직업카드는 직업가치, 직업선호 파악을 위해 활용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중 역량강화활동의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는 3.55점. 전반적으로, 3점(보통)과 4점(도움이 됨) 사이
- 자격증 취득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았던 반면, 자조모임, 취업성공담특강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
- 참여유형 별로 취업지원형의 경우 도움 정도 높게 인식한 반면(특히 자격증취득, 직업정보탐색, 취업준비교육), 자활근로형은 낮게 인식함
  - 응답자 중 약 78% (417명) 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. 417명 중 60명 (14%)은 자격증 1개, 과반수 이상 (52%)인 216명은 2개, 141명(34%)은 3개 취득

### 3)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서의 근로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향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	
		일자리로서 청년자립도전단 전반적 만족도 <sup>1,2)</sup>	<b>3.53</b>	3.62	3.65	3.66	3.63	3.61	3.68	-	3.72	3.65
만 족 도 1,2)	급여수준	<b>3.06</b>	2.99	3.11	3.16	3.01	2.98	3.14	-	3.18	3.03	3.01
	근무일수	3.67	3.60	3.73	3.69	3.67	3.63	3.73	-	3.90*	3.67*	3.52*
	근무시간	3.63	3.61	3.64	3.66	3.61	3.59	3.68	-	3.78	3.63	3.52
	일의강도	3.66	3.64	3.68	3.72	3.64	3.63	3.71	-	3.76	3.69	3.55
청년자립도전단 지속적 참여 의향 <sup>3)</sup>	2.23	<b>2.32***</b>	<b>2.15***</b>	2.24	2.22	2.27	2.18	<b>2.22**</b>	<b>2.10**</b>	<b>2.14**</b>	<b>2.45**</b>	

주1) '1점-전혀 만족하지 않음'에서 '5점-매우 만족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 
 주2) 본 문항은 청년자립도전단의 일자리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으로 참여유형에서 임파워먼트 형에게는 묻지 않음  
 주3) '1점-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참여', '2점-가능한한참여', '3점-보통', '4점-어쩔수없이 참여', '5점-당장 그만두고 싶음'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 
 지속적 참여 의향이 높음  
 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일자리로서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.53점(3점-보통, 4점-만족 사이)
- 근무일수에 있어서 참여유형별로 취업지원형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, 자활근로형의 만족도 낮게 나타남
- 지속적 참여 의향은 2.23점(2-가능한한 참여, 3점-보통 사이)으로 지속적 참여를 원했고, 낮을수록 참여의향 높음
-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 참여 의향 높음
- 참여유형별로는 취업지원형의 참여 의향이 높은 반면(2.10점), 자활근로형은 참여 의향이 가장 낮음(2.45점)

### 4) 청년자립도전단 참여자의 참여 이후 정서적 자활 변화에 대한 인지 - 고용희망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	
		고용희망 총합	3.67	3.68	3.66	<b>3.80*</b>	<b>3.61*</b>	3.66	3.68	3.75	3.78	3.60
차 원 별	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	<b>3.54</b>	3.52	3.55	3.66	3.47	3.52	3.56	3.54	3.61	3.48	3.56
	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	3.79	3.79	3.78	<b>3.92**</b>	<b>3.72**</b>	3.78	3.79	3.93	3.89	3.72	3.74
	목적지향	3.76	3.79	3.73	<b>3.90**</b>	<b>3.69**</b>	3.76	3.76	<b>3.90**</b>	<b>3.93**</b>	<b>3.68**</b>	<b>3.70**</b>
	기술과 자원활용	3.67	3.71*	3.64*	<b>3.76**</b>	<b>3.62**</b>	3.66	3.68	3.72	3.80	3.60	3.66

주1) '1점-전혀 그렇지 않음'에서 '5점-매우 그러함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

2) 고용희망은 4개 차원 17개 문항으로 구성됨. 여기서는 하위 차원값까지만 제시함

'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' 차원은 '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'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'는 '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'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목적지향' 차원은 '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'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기술과 자원 활용'은 '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/직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'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고용희망(최상미, 2014; Hong et al., 2018)은 “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는 정도”
- 전반적으로 3.67점 (3점-보통과 4점-그러함 사이)
- ‘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’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‘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’ 정도는 낮음
- 학력 수준 별로는 전반적으로 대졸이상이 고졸이하에 비해 고용 희망 정도가 높음
- 참여유형 별로는 취업지원형 및 임파워먼트형의 고용희망(특히 목적지향)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, 창업지원형과 자활근로형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
### 4) 청년자립도전단 참여자의 참여 이후 정서적 자활 변화에 대한 인지 -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

(단위: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	
		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총합(총합)	3.17	3.21	3.14	3.19	3.17	3.18	3.17	3.15	3.31	3.14
차원 별	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	<b>3.39</b>	3.40	3.38	3.38	3.39	3.41	3.37	<b>3.34*</b>	<b>3.59*</b>	<b>3.32*</b>	<b>3.37*</b>
	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극복	3.09	<b>3.15*</b>	<b>3.05*</b>	3.08	3.10	3.08	3.10	3.08	3.17	3.06	3.08
	가족관련 장벽 극복	3.13	3.18	3.10	3.18	3.11	3.14	3.12	3.12	3.27	3.12	3.07
	건강 관련 장벽 극복	3.03	<b>3.08*</b>	<b>2.98*</b>	3.08	3.00	3.01	3.04	2.96	3.18	3.00	2.98

주1) '1점-전혀 그렇지 않음'에서 '5점-매우 그러함'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

주2) 고용장벽은 4개 차원 15개 문항으로 구성됨. 여기서는 하위 차원값까지만 제시함.

'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' 차원은 '직업관련 경력이 생겼다'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극복' 차원은 '충동구매,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가 완화되었다'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가족관련 장벽 극복' 차원은 '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이 줄어들었다'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.

'건강 관련 장벽 극복' 차원은 '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가 나아졌다'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고용장벽(경제적 자활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인지)(Hong et al., 2014; 최상미, 고가영, 2019; 최상미, 2019a) 극복에 대한 인지
-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는 전반적으로 3.17점 (3점-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)
- 하위 차원 중 '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'에 대한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
- 참여유형 별로는 취업지원형의 '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' 정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남
- 남성이 여성에 비해 '삶에 대한 통제력'과 '건강 관련 장벽' 극복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음

### 5) 청년자립도전단 참여자의 참여 이후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

(단위: 점)

전체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남	여	대졸 이상	고졸 이하	1년 이상	1년 미만	임파워먼트	취업 지원형	창업 지원형	자활 근로형
n=536	n=241	n=295	n=176	n=360	n=286	n=250	n=68	n=105	n=220	n=143
<b>3.61</b>	3.65	3.59	<b>3.80**</b>	<b>3.52**</b>	3.61	3.62	<b>3.78***</b>	<b>3.83***</b>	<b>3.51***</b>	<b>3.54***</b>

주1) '1점-전혀 그렇지 않음'에서 '5점-매우 그러함'의 5점 척도

2) 진로행동은 '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',

'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/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봄',

'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/진로와 관련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',

'나는 직업/진로와 관련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/기자재를 구입함'의 4문항으로 구성됨
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진로준비행동(김봉환, 1997) 척도 중 일부 문항 활용
-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전반적으로 3.61점 (3점-보통과 4점 그러함 사이)
- 학력수준별로 대졸이상이 고졸이하에 비해 진로준비행동 적극적 수행
- 참여유형별로는 취업지원형과 임파워먼트형이 진로준비행동 적극적 수행

## IV. 미래와 자립에 대한 생각

### 1) 나와 가족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

(단위: 점)

전체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남	여	대졸 이상	고졸 이하	1년 이상	1년 미만	임파워먼트	취업 지원형	창업 지원형	자활 근로형
n=536	n=241	n=295	n=176	n=360	n=286	n=250	n=68	n=105	n=220	n=143
<b>1.90</b>	1.89	1.90	1.74	1.97	1.93	1.86	1.72	1.83	1.91	2.00

주1) '1점-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', '2점-다소 나아질 것이다', '3점-현재와 비슷할 것이다', '4점-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이다', '5점-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'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함을 의미함

-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은 점수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전망
- 전반적으로 1.90점 - 1점 '훨씬 나아질 것이다'와 2점 '다소 나아질 것이다'사이로, 2점에 가까움
-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'취창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80.9%', '국가의 도움 6.5%', '부채·신용문제 해결 4.6%' 등
-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'나와 가족 건강 나빠져서 30.4%', '버는 돈이 줄어서 26.1%', '부채·신용문제 해결 못해서 13%' 등

## 2) 청년자립도전단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립: 자립방향, 가능성 및 시기

(단위: %, 점)

구분	전체 n=536	성별		학력수준별		참여기간		참여사업유형			
		남 n=241	여 n=295	대졸 이상 n=176	고졸 이하 n=360	1년 이상 n=286	1년 미만 n=250	임파워먼트 n=68	취업 지원형 n=105	창업 지원형 n=220	자활 근로형 n=143
		자립 방향 (%)									
취업	<b>67.0</b>	68	66.1	80.7	60.3	67.1	66.8	75.0	84.8	55.5	67.8
창업	<b>13.8</b>	13.7	13.9	9.1	16.1	15.7	11.6	8.8	5.7	19.1	14.0
기타	13.4	12.0	14.6	7.4	16.4	11.9	15.2	10.3	5.7	19.1	11.9
모름	5.8	6.2	5.4	2.8	7.2	5.2	6.4	5.9	3.8	6.4	6.3
자립가능성 <sup>1)</sup> (단위:점)	<b>2.44</b>	<b>2.41*</b>	<b>2.46*</b>	2.31	2.50	2.43	2.44	<b>2.29**</b>	<b>2.25**</b>	<b>2.57**</b>	<b>2.44**</b>
자립 시기 (%)											
1년이내	22.0	22.8	21.4	33.5	16.4	23.1	20.8	26.5	26.7	16.8	24.5
2~3년	<b>47.2</b>	47.7	46.8	46.0	47.8	49.3	44.8	50.0	54.3	45.0	44.1
3~4년	17.2	17.4	16.9	11.4	20.0	16.4	18.0	7.4	9.5	25.0	15.4
4~5년	6.3	6.6	6.1	2.8	8.1	5.6	7.2	5.9	6.7	4.5	9.1
5년 이상	7.3	5.4	8.8	6.3	7.8	5.6	9.2	10.3	2.9	8.6	7.0

주1) '1점-가능성 매우 높음', '2점-가능성 높음', '3점-보통', '4점-가능성 낮은 편', '5점-가능성 매우 낮음'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립가능성 높게 인지함을 의미  
\*p < .05, \*\*p < .01, \*\*\*p < .001

- 청년자립도전단 참여자들은 향후 취업을 생각하는 비중이 2/3 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창업 13.8%
- 자립가능성은 점수 낮을수록 가능성 높게 인지함을 의미하며, 2.44점으로 2점(가능성 높음)과 3점(보통) 사이
- 자립가능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, 임파워먼트와 취업지원형 참여자가 창업지원형과 자활근로형 참여자에 비해 자립가능성을 높게 인지함
- 자립시기는 절반 정도(47%)가 '2-3년', 다음으로 '1년 이내' 22%, '3-4년' 17.2%로 봄. 약 14%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인지함

## V. 나가며 : 몇 가지 의미있는 발견과 제언

**첫째, 조건부수급자 비율 65.1%(2/3 가량). 그 외에 일반수급 15.3%, 차상위 9.5%, 자활특례 7.5%**

- ☞ 이러한 대상자의 수급 특성으로부터, 지역자활센터의 ‘청년자립도전단 사업’은 ‘조건부수급청년의 취창업 통한 탈수급 지원 사업’이 아닌 ‘포괄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저소득구직청년의 통합적 자활 지원 사업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해야 할 것

**둘째,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참여 현황(창업지원형 41%, 자활근로형 26.7%, 취업지원형 19.6%, 임파워먼트 12.7%) vs. 원하는 자립 방향(취업 67%, 창업 13.4%, 모름 5.8%)**

- ☞ 참여자가 원하는 자립방향과 참여사업 내용 간의 부정합
- ☞ ‘창업지원사업’으로의 자활사업의 정체성 변화의 모습이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서도 반영
- ☞ 노동 시장의 상황과 역량 고려하되,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‘취업지원’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제안

**셋째, 근로 업종에서 쏠림 및 전통적 업종에의 집중 현상 발견**

(카페 35.5%. 자격증취득교육 35.3% 그 외-편의점, 음식점, 제과제빵, 공방·목공·가죽, 행정·사무 4~6% 수준)

- ☞ 다양한 욕구와 4차 산업사회의 변화 반영한 사업단 근로업종 다양화 및 다양한 업종에의 인턴 연계 노력 필요

**넷째, 청년 특성 및 참여사업유형에 따라 청년자립도전단 세부 사업(개인별 자립계획수립, 역량강화활동의 세부 활동)으로부터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한 인식 다름**

- ☞ 참여 사업 단계 및 참여사업유형별(임파워먼트 - 취업지원형/ 창업지원형/ 자활근로형)로 맞춤형 차별적 지원 방안 고려

**다섯째, 정서적 자활을 의미하는 고용희망(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정도)의 하위 차원 중 낮은 ‘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식’(자신감, 효능감과 연관되는 개념) 정도**

- ☞ 정서적 역량강화 사업 강화 필요성 제안

**여섯째, 인적자본 향상 역할 수행. 참여 청년들은 ‘직업기술 및 학력 부족 등 인적자본 부족’을 자신의 가장 큰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는 한편,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 장벽 중 ‘인적자본 부족 극복’을 경험한 정도가 가장 높았음.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청년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(78% 자격증 취득,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) 세부 사업 중 자격증 취득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지함**

- ☞ 즉 사업 참여하면서 ‘인적자본 향상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실제로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이 참여자의 인적자본 향상에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음

- ☞ 청년 중심 사업단의 특성 반영하는 결과로서,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'직업 교육·훈련' 강화 및 유연한 운영 제고 필요 (현재 참여 초기 6개월 220만원)
- ☞ 포괄적 관점에서 '지역사회 저소득 청년 구직자의 통합적 자립 지원 사업'으로서, 참여 청년의 욕구(인적자본 강화, 취업)와 상대적 결핍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의 재구조화 필요
  - 개인별 맞춤형 지원 위한 사례관리 강화
  - 인적자본 강화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비중 및 지원 강화, 유연화
  - 취업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취업지원 사업 비중 확대
  - 사업단 및 인턴연계 업종 다양화 및 고도화
  -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

## 참고문헌

- Hong, P. Y. P., Choi, S., & Key, W.(2018). Psychological Self-Sufficiency: A Bottom-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. *Social Work Research*, 42(1), 22-32.
- Hong, P. Y. P., Polanin, J. R., Key, W., & Choi, S.(2014).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(PEBS): Measuring Psychological Self-sufficiency. *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*, 42(6), 689-706
- 김봉환. (1997).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.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.
- 최상미. (2017).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: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(Korean Employment Hope Scale: K-EHS) 개발과 타당도 검증. *사회복지연구*, 48(2), 97-119.
- 최상미. (2019a).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: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. *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*, 62, 31-56.
- 최상미. (2019b). 자활행동 (behavioral self-sufficiency: BSS)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: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. *한국사회복지행정학*, 21(3), 75-100.
- 최상미, 고가영. (2019).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. *사회복지연구*, 50(2), 29-52